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ception of Love, Sexual Attitudes, and Mate Condi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 교수 김 경 신

박사과정 김 오 남

박사과정 윤 상 희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eong-Shin, Kim

Graduate Student : Oh-Nam, Kim

Graduate Student : Sang-Hee, Yoon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hree folds; to find general trends of the conception of love, sexual attitudes and mate conditions of unmarried men and women,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among them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mate conditions.

The samples were the 164 unmarried men and 235 unmarried women living in Kwang-ju.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Unmarried men revealed higher concern in commitment of love and they were more liberal in sexual attitudes than women. Women desired higher level of mate conditions than men compared with themselves.

2) Women's conception of love was more related to their sexual attitudes and homogeneous mate conditions than men. Men's sexual attitudes were related to their homogeneous mate conditions, while those of women were related to interactional mate conditions.

3) Men's external mate conditions were affected by job, and internal mate conditions

were affected by passion of love and sex role attitude. Men's homogeneous mate conditions were affected by attitude of premarital sexual experience, intimacy of love and conception of sexuality, and those of women's were affected by passion of love and age. Men's interactional mate conditions were affected by sex role attitude and father's age, and those of women's were affected by sex role attitude, job and education. Therefore unmarried men and women's conception of love and sexual attitudes were associated with homogeneous and interactional mate conditions.

1. 서론

결혼에 대한 의미나 가치관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현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결혼의 동기는 점차 개인의 행복이나 자아실현의 욕구 추구, 두 사람간의 사랑이나 인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직·간접적으로 부모나 가정환경 등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배우자선택에 대한 전통적 규칙과 양식이 잔존하고 있어 바람직한 배우자선택에 대한 재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사랑과 성은 가족의 형성과정 중에서 매우 중시되어야 하는 요소이고, 실제로 일상적인 삶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이나, 지금까지 과학적 분석의 대상으로는 다양하게 다루어지지 못해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에 관한 공개적인 언급조차 금기시하는 전통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을 탈피하고 사랑과 성을 사회와 문화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특히 바람직한 배우자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다면 포괄적이고 분석적,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사랑과 배우자선택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먼저 전통적 결혼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대두되지 않았던 사랑이 현대 미혼남녀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혜선·김영희, 1983; 홍준숙, 1987). 또한 성과 배우자선택의 관련성을 보면 과거보다 점차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배우자 선택이 관련됨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결과들(공미혜, 1993; 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 1995;

King, Balswick & Robinson, 1977)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랑과 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랑의 실태와 성허용성 즉 이성교제의 상태나 순결에 대한 내용(강호철, 1984; 장휘숙, 1995; 조양지, 1984; 홍준숙, 1987)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는 배우자 선택의 조건, 즉 배우자를 어떤 범위로부터 어떤 기준에 의해, 누가 선택하는가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경우와 배우자 선택의 메카니즘 즉, 배우자 선택은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되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혜선·한선희, 1995). 그러나 이러한 세가지 요소들이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지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합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전통성과 개방성이 공존하면서 젊은 세대들에게 혼란과 갈등을 주기 쉬우므로 이들의 사랑과 성 및 배우자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상호 관련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건전한 가족형성의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 배우자선택 조건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며, 이들간의 관련성 및 관련변인들이 배우자 선택 조건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올바른 배우자 선택을 통한 결혼관 정립과 성공적 결혼생활을 돕고 나아가 건강한 가족과 사회의 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또한 성별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성별에 따라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성별에 따라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관련변인들이 배우자선택 조건에 어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1)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은 학자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주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는 그 대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경향이라고 하여 자비적 사랑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Leibniz, 1967; 로버트 스텐버그 외, 1994에서 재인용). 또한 Nass와 McDonald(1982)는 사랑이란 자신이 믿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행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며, 공통된 목표, 꿈, 희망을 가지고 상대방과 함께 기꺼이 어려움에도 동반할 수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의로 보아 사랑은 두 사람을 함께 유지시켜주는 긍정적 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랑의 개념을 그 구성요소로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ritelli, Myers와 Loos(1986)는 사랑의 요소를 의존성(dependency), 친밀감(intimacy), 신체적 매력(physical arousal), 존경(respect), 유사성(compatibility)으로 보았고, Collins와 Read(1990)는 성인의 사랑유형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애착유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착안하여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한 신뢰(dependence), 불안(anxiety), 친밀(close)요인으로 사랑유형을 이론화하였다. 이는 Bowlby의 안전애착(secure), 불안애착(anxious), 회피애착(avoidant)과 유사한 개념을 보이거나 이들의 사랑요인들은 연속적인 인성차원들이고 상호배타적이 아

닌 반면에, Bowlby의 애착유형은 범주유형들이고 상호배타적인 성격특징들이라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Stinnett, Walters와 Kaye(1984)도 사랑의 요소를 상대의 복지와 성장에 대해 배려하는 돌봄, 책임있게 행동하는 책임감, 존경, 지식, 상대의 욕구를 깨닫고 반응하는 헌신으로 보았다.

사랑과 헌신의 개념을 분석한 Kelly(1983)는 사랑이란 긍정적 감정과 행동이라 언급하고 헌신은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의 안정성이라 하였다. Sternberg(1986)는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구분하는 삼각모형을 제안하였다. 즉 사랑은 3가지 주요한 요소인 친밀감(Intimacy), 열정(Passion), 결정/헌신(commitment)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친밀감은 정서적 투자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열정요소는 동기적 몰입에서, 그리고 결정/헌신은 관계에 대한 헌신과 그 안에서의 인지적 결정에서부터 도출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미혼남녀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려고 한다.

2) 성에 대한 태도

성은 통합적 개념으로 육체적 성, 정신적 성 및 사회적 성이 한 사람의 특성 속에 체계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Simon & Gagon, 1974).

성에 대한 태도는 성에 대한 개념, 순결의식, 가치관, 성지식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데,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친족주의의 붕괴, 여성의 직업참여, 상업적 성문화의 발달과 남녀평등주의 가치관은 전통적 성규범의 해체에 강력한 영향을 주어 금기시 되어온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혼전 성관계의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영옥, 1983).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대체로 결혼전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편이 아직도 우세하며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이 순결에 있어서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정자, 1983; 공미

혜, 1993; 박순희·함귀옥, 1986; 박진숙, 1984; 박희성등, 1995; 이정숙, 1985; Conger, 1977; King et al. 1977).

성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은 학습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성교육을 강조하느니 만큼, 성지식은 성의식을 확립해 나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성행동 역시 성지식과 관련을 맺고 있다(이유정, 1988). 최근 쾌락추구적 가치관과 각종 성 정보의 범람은 성의 순결성을 상실하도록 자극하며 성적비행과 성피해 현상을 증가시키고 있다(박말순, 1983). 이에 따라 올바른 성지식의 습득이 성의식의 형성 과정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원숙(1976)의 연구에서는 성병감염경로에 성지식정도가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성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성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이유정, 1989), 반면 높은 성지식은 성경험을 감소,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Elisen, Zellman & McAlister, 1990; Zabin, Hirsch, Smith, Strett, & Hardy, 1986; Arcus, Scvanebekdt, & Moss, 1993에서 재인용).

2. 배우자 선택 조건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배우자 선택 조건은 일반적으로 연령, 학력 등의 외적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애정의 표현력이나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도, 대인관계의 원만성, 진취성이나 성취욕(Feingold, 1992) 등의 내적 조건도 중시되고 있으며 두 사람이 갖는 신체, 정신적 특성이 비슷한 경우 서로를 선택하는 경향도 높으나(임진, 1992) 서로 보완적 특성을 가지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도 점차 중시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한 서병숙과 정혜은(1994)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 남녀가 고려하는 배우자 선택 조건에는 성차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미혼남녀 모두 애정, 성격, 건강과 같은 개인적 속성을 중시하나 이차적으로 남자는 여자의 용모를, 여자는 남자의 학벌과 생활력 등의 현실조건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Feingold(1990, 1992)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에 비해 신체적 매력을 더 중시하고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사회 경제적 지위, 야망성, 성격, 지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Schoen과 Wooldredge(1989)도 여성은 남성의 경제적 조건에, 남성은 여성의 비경제적 조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 선택의 제 조건들 즉, 배우자의 형제 순위, 연령차, 배우자의 출신지역, 배우자의 가문, 배우자의 교육정도 등은 성별 및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형제순위를 더 고려하는데 특히 장남보다는 차남이나 삼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1981; 임진, 1992; 홍준숙, 1987). 배우자의 출신지역에 대해서는 여성이 특정 지역에 대한 보수적 태도와 지역적 내혼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가문에 대한 태도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은숙, 1981).

연령에 따라서도 배우자 선택 조건에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다른 집단에 비해 국가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안해옥, 1987), 배우자와의 연령차도 연령이 높을수록 연령차가 적은 배우자를 원하고 있으며 연애훈을 선호하고 있었다(임진, 1992).

교육수준 역시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임진(1992)의 연구에 따르면, 고졸인 경우가 대졸이상인 응답자보다 배우자의 건강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애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도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배우자를 원하고 있었고(안해옥, 1987), 연애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진, 1992).

가정생활수준도 배우자 선택의 중요 변인으로 나타났다는데, 안해옥(1987)의 연구에 따르면 상류층의 응답자가 배우자의 더 나은 경제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Melton과 Thomas(1976)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도구적인 조건들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사랑과 성의식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사랑과 성 허용, 사랑과 순결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남녀간의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져도 좋다'에는 남성이, '사랑한다면 배우자가 순결하지 않아도 상관없다'에는 여성이(홍준숙, 1987), 성허용성에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강호철, 1984; 장휘숙, 1995; 조양지, 1984). 김영옥(1983)은 사랑할 때 성관계에 찬성하는 비율에 있어 남자대학생의 경우 37.8%, 근로청소년의 경우 67.2%이며 여자대학생의 경우 15.8%, 근로여성의 경우 41.4%로 각각 나타난다고 하여, 남녀간의 차이뿐만아니라 대학생과 근로자의 차이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랑은 지속적인 상호관계의 산물로 여겨지며 성적행위는 사랑의 표현으로 공공연히 간주되므로, 이성간의 성은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해되고, 상호긴밀성을 가지고 관계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김모란, 1995; Adams, 1980; Jeffery, 1980). 종합해 보면 사랑이 기반이 되는 혼전남녀관계에서, 성은 사랑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사랑과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며, 사회적 규범 또한 애정과 혼인이 전제되는 한 혼전 성관계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므로, 사랑과 성이 미혼남녀관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커졌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사랑에 따른 배우자 선택의 연구들을 보면, Lee와 Stone(1980)의 연구에서는 로맨틱한 사랑을 할수록 자율적인 배우자 선택 즉, 자유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gers(1983)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랑은 결혼의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유일한 이유였다고 밝히면서 배우자 선택에서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늘날 혼인을 앞둔 미혼남녀들은 연구대상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사랑하므로' 혹은 '사랑하기 때문에'가 절대다수의 반응을 보여 배우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애정과 사랑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남녀간의 사랑이 결혼의 동기이자 목적으로 이미 제도화 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강은숙, 1981; 김미숙, 1987; 송재희, 1988; 홍준숙, 1987).

성에 따른 배우자 선택을 보면 박인택(1973)의 연구에서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배우자의 순결은 상관없다는 항목에 남성은 11.5%, 여성은 3.9%가 긍정적 태도를 나타냈고, 강호철의 연구(1984)에 의하면,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이 있을 경우라도 사랑하면 상관이 없다는 문항에 남성의 49.5%, 여성의 51.7%가 긍정적 응답을 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강은숙(1981)의 연구에서도 배우자가 순결하지 않아도 결혼한다는 문항에 남성은 41.3%, 여성은 39.9%가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해옥(1987)의 연구에서도 서로 결혼할 상대라면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23.7%로 나타났다. 최근에 박희성 등(1995)이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남성의 71%, 여성의 52%가 결혼을 약속한 경우의 성관계에 찬성하고 있어 시대에 따라 배우자 선택시 어느정도 순결의식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을 연구함에 있어 배우자 선택 조건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를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 동질적 조건과 상호작용적 조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 광역시내에 거주하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학생과 일반 직장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5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450명분을 회수하였고 회수한 설문지중 응답이 불충실한 자료를 제외한 399명의 자료를 최종 통계처리 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

은 24-27세가 57.9%, 여성은 23세 이하가 51%로 가장 많으며, 여성은 대학교 재학 이상인 조사대상자가 78.7%, 남성은 94.7%를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학생, 공무원, 교사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 자신의 가정생활 수준을 중간 정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핵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는 자기 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관련변인으로는 연령, 교육, 직업, 종교, 소득, 부의 연령, 모의 연령,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 7문항과 기타 관련 변인으로 결혼의 필요성, 성역할 태도를 설정하여 총 12문항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2)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의 개념에 대한 도구는 Sternberg(1986)의 사랑의 삼각이론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친밀감, 열정, 헌신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친밀감 영역의 경우, 사랑하는 사람과의 서로 존경, 공유, 지지, 친밀한 의사소통 등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열정영역의 경우 사랑하는 관계의 낭만, 신체적 매력, 질투, 성적인 몰입 등의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헌신영역의 경우 인내, 헌신, 도움, 지속적 관계의 중요성 등 7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성에 대한 태도

성태도에 대한 도구는 박말순(1983), 이유정(1989) 등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되었으며 순결의식(4), 성개념 및 가치관(5), 성 지식(9)의 3개 하위영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의 내용은 <표 4>와 같다.

4) 배우자 선택 조건

배우자 선택 조건은 강은숙(1981), 송재희(1988), 홍준숙(1987), Melton과 Thomas(1976), Surra 등(1990)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제작하

였으며 가족학 전공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다.

(1) 외적, 내적 배우자 선택 조건: 외적, 내적 배우자 선택 조건은 8개 영역의 외적 요인과 6개 영역의 내적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14개의 각 문항은 다시 응답자 자신의 수준과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으로 구분되었으며 1점부터 7점까지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수준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2) 동질적, 상호작용적 배우자 선택 조건: 동질적, 상호작용적 배우자 선택 조건은 각각의 개별적 수준보다는 상호 영향이 증시되는 조건들로, 6문항의 동질적 조건과 5문항의 상호작용적 조건으로 구성되었다. 동질적 조건은 동질성을 추구하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상호작용적 조건은 배우자와의 상호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각각의 문항의 내용은 <표 3>, <표 4>와 같다. 사랑의 태도 및 성의식, 동질적, 상호작용적 배우자 선택 조건의 문항은 5점 Likert형으로 이루어졌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문항들 간의 내적 신뢰도(internal consistency)를 측정한 Chronbach' α 를 산출하였는데, 사랑의 태도는 친밀감의 경우 .702, 열정의 경우 .714, 헌신의 경우 .705로 나타났으며, 성에서 순결의식은 .778, 성개념 및 가치관은 .759, 성지식은 .712로 나타났다. 동질적 배우자 선택은 .735, 상호작용적 배우자 선택은 .738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상관관계(pearson's r), Step-wise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이상과 같은 통계 처리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의 일반적 경향과 성차

1) 사랑에 대한 개념

미혼 남녀의 사랑에 대한 개념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1〉과 같다. 사랑에 대한 개념의 각 영역의 점수 범위는 1점에서 5점으로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미혼 남녀 모두 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친밀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헌신, 열정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랑에 있어 친밀감의 개념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열정적인 면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차이를 보면 헌신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사랑의 지속성이나 적극적인 개입 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도 여성보다 남성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 있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랑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결과로 이해되며 선행연구(Knox, 1970)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1〉 사랑에 대한 개념

사랑에 대한 개념	남 성		여 성		t
	M	SD	M	SD	
친 밀 감	4.36	0.52	4.38	0.44	.50
열 정	3.78	0.59	3.53	0.60	1.82
헌 신	3.99	0.63	3.69	0.66	4.65***
전 체	83.85	10.38	81.21	9.75	2.64**

** p < .01 *** p < .001

2) 성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순결의식은 중간 점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전체적으로 약간 전통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전통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혼전 동거나 혼전 성관계 등에 있어 남성은 긍정적이나 여성은 다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며, 혼전 순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어 남성의 경우 순결의식에 있어 일관성의 부족과 여성의 순결만을 중시하는 이중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개념 및 가치관에서는 전반적으로 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성적 관심, 성행동의 중요성 등의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성차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특히 남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문항은 '적극적인 성행위는 사랑의 표현이다', '성적매력이 이성선택시 중요한 요인이다' 등의 문항으로서, 남성이 성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안에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갈등규범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지식 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전반적으로 성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란과 임신, 출산에 관한 성지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으나, 그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성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은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으나 피임이나 성욕구 특성 등 적극적 성지식에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3) 배우자 선택 조건

(1) 외적, 내적 조건

배우자 선택의 외적, 내적 조건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각 문항별 점수 범위는 1점에서 7점으로 중간점인 4점을 기준으로 할 때 남성, 여성 모두 자신의 수준과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외적 조건에 대한 자신의 수준 및 원하는 배우자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건강상태, 장래성, 가정환경 등의 조건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고, 원하는 배우자 수준에 있어서는 남성의 경우 건강상태, 장래성, 가정환경 등의 조건에서 그리고 여성의 경우 장래성, 건강상태, 수입, 직업, 학력 등의 조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다.

남녀간 차이를 검증해 보면, 자신의 수준에 있어서는 수입, 재산, 학력, 직업, 장래성 등의 조건에서 남녀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에 있어서는 수입,

〈표 2〉 성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 경향

성에 대한 태도		남 성		여 성		t
		M	SD	M	SD	
순 결 의 식	여성은 결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좋다	3.78	0.90	3.74	0.90	0.45
	사랑하더라도 결혼전 동거할 수 없다	2.67	1.03	3.55	1.02	-8.69***
	나의 배우자 될 사람은 순결해야 한다	3.54	1.04	3.44	1.01	1.07
	사랑하더라도 혼전성관계는 할 수 없다	2.35	0.85	3.30	1.07	-9.40***
	전 체	12.35	2.69	14.03	3.08	-5.94***
성 개 념 및 가 치 관	적극적 성행위는 사랑의 표현이다	3.63	0.87	2.81	1.01	8.68***
	여성이 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다	3.62	0.86	3.64	0.87	-0.22
	성행동은 이성관계에서 중요한 역할	3.83	0.69	3.37	0.96	5.34***
	성적 매력은 이성 선택시 중요한 요인	3.42	0.78	2.90	0.94	5.96***
	'성' 의미는 성구별보다 성행위를 의미	2.88	0.96	2.60	0.94	2.95**
	전 체	17.37	2.34	15.30	2.86	7.65***
성 지 식*	배란, 임신, 출산에 대해 알고 있다	3.28	0.84	3.53	0.81	-3.05**
	이성의 생식기관 특성에 대해 알고 있다	3.44	0.95	2.92	1.10	5.04***
	몽정, 월경, 자위행위에 대해 알고 있다	3.95	0.64	3.17	0.94	9.29***
	피임과 성병에 대해 알고 있다	3.41	0.86	2.32	0.98	12.23***
	성욕구, 성행위유형에 대해 알고 있다	3.50	0.93	2.50	1.06	10.38***
	전 체	45.99	5.19	42.48	5.93	6.47***

* 성지식의 일부 문항은 2-3개 문항을 통합, 합산한 것임.

** p < .01 *** p < .001

재산, 학력, 직업, 건강상태, 장래성 등의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수준과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배우자 선택의 외적 조건 중에서 자신에 비해 외모, 건강상태, 가정환경이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외적 조건의 모든 항목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외모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는 남녀간 격차를 더 원하고 있고 특히, 男高女低의 수준을 지향하는 전통적 관념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적조건에 대한 자신의 수준 및 원하는 배우자 수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진취성/성취욕, 대인관계의 원만성, 정서적 성

숙 등의 조건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원하는 배우자 수준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애정의 표현력의 조건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대인관계 원만성, 진취성/성취욕, 정서적 성숙 등의 조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정서적 성숙과 대인관계의 원만성을 중시함을 알 수 있다.

남녀간 차이를 검증해 보면, 자신의 수준에 있어서는 진취성/성취욕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자신의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배우자 수준에 있어서는 유머감각, 정서적 성숙, 대인관계의 원만성, 진취성/성취욕 등의 조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모든 항목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외적, 내적 조건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차이

배우자 선택 조건	남 성					여 성					t(성차)	
	자신의수준		배우자수준		차이	자신의수준		배우자수준		차이	자신	배우자
	M	SD	M	SD		M	SD	M	SD			
수 입	4.45	1.14	3.99	1.19	0.46	4.06	1.20	5.32	1.14	-1.26	3.26*	11.10***
재 산	4.02	1.32	3.93	1.21	0.09	3.76	1.21	4.89	1.19	-1.13	2.09*	7.78***
외 학 력	4.88	1.08	4.70	1.08	0.18	4.62	0.82	5.23	0.96	-0.61	2.55*	5.06***
적 외 모	4.57	1.10	4.72	1.20	-0.13	4.40	0.99	4.51	1.00	-0.61	1.65	1.79
조 직 업	4.71	1.12	4.34	1.19	0.37	4.40	1.13	5.31	1.08	-0.11	2.73**	8.38***
건 건강상태	5.42	1.34	5.52	1.35	-0.10	5.36	1.38	5.95	1.34	-0.91	0.38	3.09**
장 래 성	5.25	1.35	5.18	1.30	0.07	4.88	1.25	5.97	1.11	-0.59	2.82*	6.24**
가정환경	4.93	1.22	5.09	1.23	-0.25	4.84	1.10	5.29	1.04	-1.09	0.74	1.65
내 전체적매력정도	4.78	1.25	5.13	1.27	-0.31	4.74	1.02	5.23	1.17	-0.45	0.34	0.80
적 애정의 표현력	4.55	1.50	5.19	1.23	-0.64	4.32	1.38	5.29	1.02	-0.97	1.55	0.86
조 유머감각	4.62	1.45	4.88	1.26	-0.57	4.53	1.22	5.45	1.20	-0.92	0.63	4.49***
건 정서적 성숙	4.94	1.23	5.24	1.26	-0.06	4.88	1.12	5.59	1.15	-0.71	0.56	2.84**
대인관계원만성	5.17	1.31	5.21	1.28	-0.04	5.05	1.24	5.95	1.21	-0.90	0.95	5.81***
진취성, 성취욕	5.35	1.28	4.97	1.31	0.38	4.81	1.32	5.94	1.16	-1.13	3.99***	7.74***
계	67.70	12.14	68.04	12.58	-0.43	64.66	10.83	76.07	11.70	-11.27	2.58*	6.48***

* p < .05 ** p < .01 *** p < .001

자신의 수준과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에서 나타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진취욕/성취욕조건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했고, 여성은 모든 내적 조건에서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남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남성과 여성 모두는 자신의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여성은 배우자 선택의 외적, 내적 조건 모두에서 자신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고 있어 남녀간의 평등적 결혼의식보다는 전통적 관점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동질적, 상호작용적 조건

배우자 선택의 동질적, 상호작용적 조건은 다음 〈표 4〉와 같다. 배우자 선택의 동질적 조건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은 각각 20.60, 21.49점으로 중간점인 15점을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동질적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남성, 여성 각각 19.74, 20.80으로 나타나, 중간점인 12.5를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조건에 대한 선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을 더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의 동질적 조건에서는 특히 인생목표나 가치관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나 인생목표나 가치관의 동질성을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을 알 수 있고, 종교, 취미, 인생목표나 가치관 등의 변인에서 남녀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동질적 조건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평등적인 존중에 대한 요구가 남녀 각각 4.49, 4.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화'요인 역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상호작용적인 조건 중 상호평등적 존중, 상호독립성 유지, 역할교환 등의 변인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모든 항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여성은 남녀간 평등과 존중, 독립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역할개념을 가지고 있

〈표 4〉 동질적, 상호작용적 조건의 일반적 경향 및 성별차이

배우자 선택 조건		남 성		여 성		t
		M	SD	M	SD	
동 질 성	연 령	3.22	0.82	3.40	0.98	1.88
	출신지역	2.87	0.95	2.91	1.00	0.41
	종 교	3.30	1.08	3.77	1.05	4.40***
	취 미	3.84	0.87	4.02	0.82	2.12*
	인생목표, 가치관	3.93	0.81	4.10	0.82	1.99*
	성 격	3.45	0.92	3.29	0.94	1.56
	소 계	20.60	3.25	21.49	3.03	2.77**
상 호 작 용 성	대화가 잘 통함	4.35	0.63	4.46	0.62	1.78
	상호평등적 존중	4.49	0.69	4.62	0.61	1.97*
	상호독립성유지	4.08	0.82	4.40	0.71	4.17***
	단점보완	4.09	0.76	4.06	0.84	0.39
	역할교환	2.74	0.62	3.27	0.95	5.50***
	소 계	19.74	2.14	20.80	2.25	4.78***
계		40.34	4.14	42.30	3.96	4.77***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보인다.

2.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과의 관계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과의 상관관계는 〈표 5〉와 같다. 남성의 경우 사랑에 대한 개념과 성태도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은 친밀감과 순결의식($r=.17$), 열정과 성개념($r=.17$), 헌신과 순결의식($r=.17$)간의 다소 낮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데 사랑의 요소 중 친밀감과 헌신은 보다 전통적인 순결의식과 관련되며 열정적인 면이 많을수록 성개념이 개방적인 성향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사랑에 대한 개념과 배우자 선택 조건간의 상관은 열정과 내적조건($r=.17$), 친밀감은 동질성($r=.24$) 및 상호작용성($r=.17$)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열정적인 면이 많을수록 내적조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사랑의 공유와 상대방과의 가까운 거리감 등이 배우자 선택 조건의 동질적인 면, 상호작용적인 면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성태도와 배우자 선택

조건에서는 순결의식과 동질성만이 유의한 정적상관($r=.22$)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통적인 순결의식을 소유할수록 배우자와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동질적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사랑에 대한 개념과 성태도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을 보면,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경우 열정과 순결의식이 부적상관($-.20$)을 나타내고 있어 사랑의 개념에서 열정적인 면이 많을수록 순결의식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정과 성개념($r=.42$) 및 성지식($r=.20$)간에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열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적극적인 성개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친밀감과 성지식($r=.16$), 헌신과 성지식($r=.12$) 등도 미약한 상관을 보여주고 있어 미혼남녀의 사랑에 대한 개념과 성태도간 긴밀한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사랑에 대한 개념과 배우자 선택 조건에서는 남성과 달리 사랑의 개념 모든 하위영역과 동질성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사랑의 개념 하위영역 중 친밀감과 상호작용성($r=.16$)이 다소

낮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인 사랑의 개념이 다른 조건보다는 동질적 조건의 배우자와 더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랑의 개념 중 친밀감은 상호작용적인 배우자조건과 관련됨을 알 수 있는데 남성과 유사하게 서로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추구하는 성향이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성태도와 배우자 선택 조건의 경우 순결의식이 상호작용성과 낮은 부적상관을 나타냈는데 보다 높은 순결의식은 서로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며 성태도와 동질적 상호작용적 조건에도 낮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녀모두 사랑에 대한 개념 중 친밀감 요소는 배우자 선택시 내·외적 조건보다는 동질적 상호작용적인 면과 더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열정적인 요소는 적극적인 성격면과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사랑의 개념 중 열정적인 면이 낮은 순결의식과 관련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의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한 열정적인 면이 순결의식과 부적상관을 나타낸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여성의 모든 사랑개념과 동질적 배우자 선택 조건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여성에게 있어 유사성을 가진 배우자 선택시 사랑의 조건이 기본전제가 되어야 함을 제시해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 선택

〈표 5〉 남성과 여성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의 관계

남 성	사랑의 개념			성태도			배우자 선택조건			
	1	2	3	4	5	6	7	8	9	10
1. 친 밀 감										
2. 열 정	.52***									
3. 헌 신	.70***	.57***								
4. 순결의식	.17*	.06	.17*							
5. 성 개 념	.06	.17*	.02	-.33***						
6. 성 지 식	.11	.14	.06	-.20**	.33**					
7. 외적조건	-.01	.05	-.10	.11	.01	-.01				
8. 내적조건	.09	.17*	.06	.13	-.07	-.07	.76***			
9. 동 질 성	.24**	.09	.12	.22**	.12	.10	-.01	-.01		
10. 상호작용성	.17*	.08	.14	.08	.09	-.06	-.02	-.11	.06	
여 성	사랑의 개념			성태도			배우자 선택조건			
	1	2	3	4	5	6	7	8	9	10
1. 친 밀 감										
2. 열 정	.52***									
3. 헌 신	.56***	.47***								
4. 순결의식	.02	-.20**	.08							
5. 성 개 념	.23***	.42***	.17**	-.33***						
6. 성 지 식	.16**	.20***	.12*	-.17**	.22***					
7. 외적조건	.06	-.01	.01	.02	.04	.02				
8. 내적조건	.06	-.03	.07	.02	.07	.02	.83***			
9. 동 질 성	.22***	.22***	.21***	.06	.10	.13*	.08	.01		
10. 상호작용성	.16**	.05	.07	-.12*	.07	.13*	.07	.04	.10	

* p < .05 ** p < .01 *** p < .001

시 친밀감 요소가 크게 작용하였으나, 여성의 경우 친밀감 뿐만 아니라 열정이나 헌신요소도 배우자의 동질적 조건 고려시 필수적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3. 배우자 선택 조건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배우자 선택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령, 교육수준, 직업, 부모의 연령, 결혼의 필요성, 성역할 태도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중심으로 1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랑과 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2단계로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 사랑과 성을 포함시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가정의 만족여부를 파

악하기 위해서 Dubin-Wats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92-2.13까지의 범위로서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6〉을 보면 배우자 선택의 외적조건의 경우 남성은 직업($\beta=-.27$)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남성은 직장인보다 대학생이 외적조건의 점수가 높은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내적조건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열정($\beta=.22$), 성역할태도($\beta=.17$)가 내적조건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열정적인 면이 많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일수록 내적조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에게는 거의 영향변인이 나타나지 않아 성차가 두

〈표 6〉 배우자 선택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남 성			여 성		
	변인	B	β	변인	B	β
외적 조건	직업	-2.97	0.27***	모의 연령	-2.01	-.13
	R ² = .06 F = 7.59***			R ² = .01 F = 3.53		
내적 조건	열정	2.52	.22**	부의 연령	-1.34	-.13
	성역할태도	2.09	.17*			
	교육수준	-1.81	-.14			
	순결의식	1.30	.11			
R ² = .11 F = 4.69**			R ² = .02 F = 3.56			
동질적 조건	순결의식	2.87	.23***	열정	2.12	.16***
	친밀감	2.08	.18***	연령	2.59	.15***
	성개념	1.92	.16*	순결	1.59	.09
	결혼의 필요성	1.54	.13	R ² = .09 F = 8.79***		
R ² = .14 F = 6.14***						
상호 작용 조건	성역할태도	3.44	.29***	성역할태도	4.39	.28***
	부의 연령	-1.79	-.15*	직업	-3.20	-.21**
	순결의식	1.31	.13	교육수준	2.60	.17*
	R ² = 1.3 F = 5.04***			친밀감	1.83	.14
			R ² = .16 F = 10.42***			

(#dummy 변수 - 직업: 학생=0, 직장인=1)

* p < .05 ** p < .01 *** p < .001

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선택의 동질적 조건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남성은 순결의식($\beta=.23$), 친밀감($\beta=.18$), 성개념($\beta=.16$)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배우자는 순결해야한다는 의식이 높을수록, 친밀감의 성향이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개념을 소유할수록 동질적 조건을 갖는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열정($\beta=.16$)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즉 열정적인 면을 많이 소유할수록 동질적인 배우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 친밀감과 순결의식 등이, 여성의 경우에는 열정적인 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과 사랑에 대한 태도가 배우자 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의 상호작용적 조건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은 성역할태도($\beta=.29$), 부(父)의 연령($\beta=-.15$)이, 여성은 성역할태도($\beta=.28$), 직업($\beta=-.21$), 교육수준($\beta=.17$)이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일수록, 아버지의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일수록, 직장인보다는 학생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배우자의 상호작용적인 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외적, 내적조건의 경우 특히 남성에게 사랑의 개념 및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주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동질적, 상호작용적 조건의 경우 성과 사랑이 뚜렷하게 배우자 선택 조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적 조건의 경우 남성은 성과 사랑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사랑의 열정적인 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배우자의 동질적 조건을 볼 때 성과 사랑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상호작용적 조건에서도 특히 남성의 경우 순결의식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성이 배우자 선택에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상호작용적 조건에서 남녀 모두 성역할태도가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근대적인 성역할태도가 배우자 선택시 서로의 상호작용적인 면을 잘 보완하고 지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남녀의 사랑의 개념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은 점수범위를 1점에서 5점으로 할 때 모두 3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차이를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특히 헌신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태도에 나타난 일반적 경향은 전반적으로 순결의식, 성개념 및 가치관, 성지식 수준 모두 중간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남성보다 여성이 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면서도 여성의 순결성을 선호하는 등 이중가치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는 배우자 선택의 외적, 내적 조건에서 자신의 수준과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 모두 전체적으로 중간점을 상회하는 점수를 나타내었고 비교적 동질적인 배우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 조건간의 상관에서 남성의 경우 사랑의 개념과 성태도 하위영역간의 상관은 친밀감과 순결의식, 열정과 성개념, 헌신과 순결의식에서 다소 낮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사랑에 대한 개념과 배우자 선택 조건의 하위영역간의 상관은 친밀감과 동질성 및 상호작용성, 열정과 내적조건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성태도와 배우자 선택 조건에서는 순결의식과 동질성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여성의 경우 사랑과 성태도간의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 특히 열정적인 면이 많을수록 순결의식이 낮게 나타났고 개방적인 성가치관과 많은 성지식을 나타냈다. 사랑의 개념의 모든 하위영역은 동질적 조건의 배우자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태도와 배우자 선택 조건의 하위영역간에서는 순결의식과 상호작용성과는 부적상관, 성지식과 동

질성 및 상호작용성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배우자 선택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을 보면 외적조건인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직업($\beta=-.27$)이, 또한 열정($\beta=.22$), 성역할태도($\beta=.17$)가 내적조건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배우자 선택의 동질적 조건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보면 남성은 순결의식($\beta=.23$), 친밀감($\beta=.18$), 성개념($\beta=.16$)이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배우자 선택의 상호작용적 조건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남성은 성역할태도($\beta=.29$), 부(父)의 연령($\beta=-.15$)이, 여성은 성역할태도($\beta=.28$), 직업($\beta=-.21$), 교육수준($\beta=.17$)이 각각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랑에 대한 개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성태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전통적인 가치를 지향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녀간의 생리적 특성보다는 남녀의 역할과 지위의 차이, 이 차이를 재생산하는 사회문화구조,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의 사회화 과정으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 모두에게 평등하고 올바른 성역할관의 정립과 사랑에 대한 태도와 표현이 조화되도록 교육되어야 하겠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부터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둘째, 미혼 여성은 전통적인 순결의식 및 성태도를 보인 반면, 남성은 성에 대해 허용적인 의식과 태도를 보이면서도 여성의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등 모순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는 폐쇄적이지만 남성에게는 개방적인 성의 이중적 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규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있는 성 윤리규범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의식과 행동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무분별한 성개방 풍조도 사회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배우자 선택의 외적, 내적 조건에서 자신과 원하는 배우자의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배우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도 여성이 남성우월주의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고 결혼을 통한 여성의 지

위상승을 꾀하려는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여성은 결혼에 있어 인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주도성을 획득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미혼 남녀는 배우자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동질적인 배우자를 원하고 있고, 배우자와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평등성, 상호독립성, 역할교환 등에 있어 남성은 여성보다 전통적 역할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특히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준비 교육 등을 통하여 평등한 결혼관계, 평등 부부 개념을 교육함으로써 배우자간에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조화로운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배우자 선택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사랑, 성, 성역할 태도 등의 변인이 대표적인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미혼남녀의 의식구조가 사랑, 성, 성역할 태도 등에 있어 큰 변화를 맞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특히 이에 관련된 연구와 대안 제시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서 올바른 남녀관계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 선택 조건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이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은숙(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2) 강호철(1984).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연구. 경상대 교육석사논문.
- 3) 고정자(1983). 미혼남성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89-106.
- 4) 공미혜(1993).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여성연구 4, 27-47.
- 5) 김모란(1995).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원 편. 경춘사. 129-170.

- 6) 김미숙(1987). 한국 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7) 김영옥(1983). 혼전성에 대한 태도와 행동. 서울대 석사논문.
- 8) 김혜선·김영희(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07-125.
- 9) 김혜선·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통대 논문집 8, 67-111.
- 10) 김혜선·한선희(1995). 배우자 선택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44-155.
- 11) 로버트 스텐버그 외(1994). 사랑의 심리학. 고선주, 이경희, 최연실, 조은숙 역, 하우.
- 12) 박말순(1983). 고등학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13) 박순희·함귀옥(1986). 남녀 대학생들의 데이트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상명여대 가정교육학회 논문집, 20-28.
- 14) 박인덕(1973). 한국인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숙대 아세아 여성연구 12, 151-174.
- 15) 박진숙(1984). 대학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29-148.
- 16) 박희성·이진숙·박초아·정민자(1995). 미혼남녀의 성행동실태와 혼전성에 대한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33(6), 11-23.
- 17) 배원숙(1976). 성병에 관한 대학생들의 지식 및 태도조사. 수원간전문문 2, 83-101.
- 18) 송재희(1988). 대학생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결혼관에 관한 연구-대전시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 19) 서병숙·정혜은(1994). 배우자 선택과 결혼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생활과학 연구 12, 209-227.
- 20) 안해옥(1987). 미혼 남자 대학생들의 결혼관에 대하여. 조선대 석사논문.
- 21) 유시중·한유상(1984). 남녀 대학생의 결혼관(1). 동양문화연구 11, 187-211.
- 22) 유영주(1976). 한국가족에 있어서의 결혼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2, 127-150.
- 23) 이유정(1989). 산업체 근로여고생의 성의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논문.
- 24) 이정숙(1985). 여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한양대 한국생활과학연구 3, 367-383.
- 25) 임종권·김혜연·장동현·김주정·김한경(1994). 미혼남성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6) 임진(1992). 일부 미혼 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27) 장휘숙(1995). 가족심리학-가족관계의 발달. 박영사
- 28) 조양지(1984). 보건전문대생의 성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 교육석사논문.
- 29) 정민자(1987). 배우자 선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 논문집 8, 105-126.
- 30)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논문.
- 31) Adams, B.N.(1980). The family. New York: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 32) Arcus, M.E., Schvanevelt, J.D., & Moss, J.J.(1993). Handbook of family life education. Sage Publications, Inc.
- 33) Collins, N.L., & Read, S.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PSP 58(4), 644-663.
- 34) Conger, J.J.(1977). Adolescence and Youth. The Murry Printing Company.
- 35) Critelli, W.J., Myers, J.E. & Loos, E.V.(1986). The components of love; Romantic attraction and sex role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4(2), 354-370.
- 36) Feingold, A.(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PSP 59, 981-993.
- 37) Feingold, A.(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1), 125-139.
- 38) Jeffrey, S.V.(1980). Human sexuality. A social

- Psychological approach.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N.J..
- 39) Kelly, H.H.(1983). Close relationship-Love and commitment. W.H.Freeman and company New York SanFrancisco. 265-314.
- 40) King, K., Balswick, J.O. & Robinson, I.O.(1977). The Continuing premarital sexual revolution among college females. *JMF* 39(2), 455-459.
- 41) Knox, O.H.(1970). Conception of love at three developmental levels. *The Family Coordinator* 19, 151-157.
- 42) Lee, G.R. & Stone, L.H.(1980). Mate-selection systems and criteria: Variation according to family structure. *JMF* 42(2), 319-326.
- 43) Melton & thomas(1976). Instrumented and expressive values in mate selection of black and white college students, *JMF* 38(3), 509-517.
- 44) Milardo R.M., Johnson, M.P. & Huston, T.L. (1983). Developing close relationships; Changing patterns of interaction between pair members and social networks. *JPSP* 44(5), 964-976.
- 45) Murstein, B.I.(1980). Mate selection in the 1970s. *JMF* 40(4), 777-792.
- 46) Nass, G.D. & McDonald, G.W.(1982). Marriage and the Family. Adison Wesley Company.
- 47) Rogers, C.R.(1984). Love, sex and getting married. Ralph LaRpssa(ed.), *Family case studies*, The Free Press.
- 48) Schoen, R. & Wooldredge, J.(1989). Marriage choices in North Carolina and Virginia, 1969-71 and 1979-81. *JMF* 51(2), 465-481.
- 49) Shah, F. & Jelnik, M.(1981). Parent and peer influence on sexual behavior contraceptive use and pregnancy experience of young women. *JMF* 43(2), 339-343.
- 50) Simon, W. & Gangon(1974). Psycho-sexual development. In Skolnik, A. & Skolnik, J.H(eds.), *Intimacy, family & society*, Boston: Little Brown & Company.
- 51) Sternberg, R.J.(1986). A triangle theory of love. *Psychological Review* 93(2), 119-135.
- 52) Stinnett, N., Walters, J. & Kaye, E.(1984). *Relationships in marriage and the family*. Macmillan Publishing Co.
- 53) Surra, C.A.(1990). Research and theory on mate selection and premarital relationships in the 1980s. *JMF* 52(4), 844-865.